● 타운뉴스 칼럼

흥사단 조셉 신 대장

위해 스카우트 대원들이 LA에서 우정의 종각이 있는 산 페드로까지 야영을 하며 매일 10마일씩 걸어 \$3,000의 성 금을 모아 기탁했다는 기사를 보고 신선한 느낌을 받았다.

안창해

신 대장은 여전히 뚜렷한 목표 의식과 뜨거운 열정을 갖 고 있었다. 그는 흥사단이 우리 한인들의 의식의 전환을 위 해 노력해야 할 때임을 강조했다. 특히 청소년들에게 비전 과 목표 의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했다.

"1963년 8월 'I have a dream.' 을 외치던 마틴 루터 킹 목 사의 꿈은 '흑인이 백인과 평등하게 살게 된다' 는 아주 소 박한 것이었다. 그런데 그로부터 50년이 채 안 되어 흑인 대 통령이 탄생했으며, 그 흑인 대통령은 2009년부터 2017년 까지 8년간 대통령직을 수행했다. 마틴 루터 킹이 뿌린 작 은 씨앗이 발아하고 싹을 티워 거대한 거목으로 성장하기 까지 불과 45년밖에 걸리지 않은 것이다.

한반도의 통일도 그렇다. 꿈을 갖고 있어야 이루어진다. 꿈조차 갖고 있지 않으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. 통일을 위해서는 강대국들이 움직여야 한다. 그 강대국 중에 휴전 협정에 서명한 당사국인 미국이 가장 큰 힘을 갖고 있기에 더더욱 미국에 사는 우리들의 노력이 절실하다. 독일의 통 일도 동독과 서독이 국내외에서 강렬하게 기도하고 외쳐 서 이룩한 것 아닌가. 우리도 한반도 통일을 위해 큰 소리 를 내야 한다.

꿈을 이루기 위해 힘을 키워야 한다. 4.29 폭동 당시 백인 들이 많이 사는 할리우드와 일본 타운에는 주방위군이 지 키고 있어 피해가 일체 발생하지 않았다. 그러나 한인 타운 은 불에 타고 폭도들에 의해 파괴되고 점거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도 소방관들도 두손 놓고 있었다. 그래서 한 인들이 총을 들고 폭도들과 싸워 지켜내야 했다.

힘을 갖추기 위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분야에서 힘 있 게 활동하는 한인들이 나와야 한다. 우리 흥사단이 바로이 런 일을 할 것이다. 앞으로 미래를 이끌고 나갈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"

신 대장의 열정이 담긴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쟁쟁하 다. 흥사단의 무실(務實) · 역행(力行) · 충의(忠義) · 용감(勇 敢)의 4대 정신을 이념으로만 신봉한 것이 아니라 실천하 며 사는 그의 진심이 느껴진다.

흥사단의 활동이 우리의 밝고 건전한 미래를 향해 활짝 열려 있다.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커뮤니티의 도움과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. 조셉 신 대장과 흥사단의 활동에 타운뉴스 독자 여러분들의 뜨거운 관심과 성원을 바란다.

chahn@townnewsusa.com

타운뉴스

제 1439 목차



타운뉴스 칼럼 11
커뮤니티 소식
나는야 1.5세 아줌마 16
법률
여행21
전문인 칼럼
세상에 이런 일이27
우리 동네 걷기 좋은 곳
숨은그림 찾기,답/낱말 퀴즈,답 26/50,26/50
건강 33
부동산/경제 37
한인업소 안내지도 40,42,52,54,56
요리 41
그림여행 43
연예
종교46
<u>"</u>" 36
안내광고
Domestic50
여성

매장·화장·묘지주선·이장·장례보험등

- 넓은 주차장 교통 편리 (LA, OC-20분)
- 저렴한 비용으로 봉사하여 드립니다.

24시간 대표: 정 영 목 목사 9830 Lakewood Blvd., Downey, CA 90240 (562)622-9393

타운뉴스 배포지역

- 로스엔젤레스, 세리토스, 아테시아
- · 다이아몬드 바 등 LA 동부
- 하시엔다, 로랜하이츠
- 오렌지카운티 전지역

광고문의 562,404,0027 info@townnewsusa.com

www.townnewsusa.com

사람들은 모이기를 좋아한다. 모여서 이런저런 목적을 지 닌 모임이나 단체를 만든다. 각종 취미활동을 중심으로 하 는 모임부터 회원들의 이익 도모를 위한 단체, 자녀들의 교 육을 위해 학교를 만들기도 하고, 동창회, 향우회, 혹은 동 족이나 동포들끼리 모여 친목을 도모하면서 권익을 지키 려는 단체에 이르기까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단 체들이 있다.이곳 한인 커뮤니티에도 수많은 단체들이 있 다. 필자도 한인가정상담소와 성토마스 한국학교 등에서 봉사한 바 있다.

이런 단체들 가운데에는 회장, 비서, 총무, 회계를 한 사람 이 다 겸임한 단체들도 부지기수다. LA 언론에 가끔 특별 한 이슈를 제기하면서 떠들썩하게 소란을 일으키려고 시 도하던 어떤 사람이 회장인 한 단체의 캘리포니아 주 등 록 서류를 우연히 본 적이 있다. 그 단체도 그랬다. 한 사 람이 모든 직책들을 겸하고 있었고, 서류에 등록된 단체 의 주소지는 LA 외곽 작은 도시의 개인 주택이었다. 그 주 택의 소유주도 본인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었다. 이렇게 등 록 서류 하나 제대로 갖추지 않고 등록한 단체의 장이라면 서 명함을 파서 이 사람, 저 사람 만나 뿌리고 부회장, 총무 등의 직함을 나눠주고 다닌다. 언론에 가서 인터뷰를 하고, 등록된 회원이 수천 명이라고 떠들고 다닌다. 심지어 자신 의 이득을 위해 사람의 약점을 건드려서 궁지에 몰아넣기 까지 한다.

이런 단체들만 있는 건 아니다. 여러 지역에서 주말에 열 리고 있는 한국학교, 한인가정상담소, 민족학교, 한미연합 회, 흥사단 등과 같이 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단체들도 부 지기수다. 특히 흥사단은 1913년 5월 도산 안창호 선생 주 도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조선 8도를 대표하는 청년들 을 포함해 25인의 발기인들이 발족했다. 100년이 훨씬 넘 도록 유지되고 있는 미국에서 만든 한인 단체 중 하나다. 해방 후 미국에 있던 본부를 서울로 옮겼고, 대한민국 전 국 각 시도에 지부를 설립했고, 미 전역에서도 지부 활동 이 활발하다.

지난주에 이 흥사단 미국 LA 지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 셉 신 대장을 만났다. 조셉 신 대장은 2살 때 부모 따라 미 국에 이주했기 때문에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2세라 해도 무 방하다. 필자는 흥사단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그리 좋지 는 않았다. 언론 보도를 통해 늘 서로 다투는 단체라는 인 식이 자리를 잡고 있었고, 옛날 구닥다리 노인들이 운영하 는 단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다.

그러나 한인타운에서 보이스카우트 지도자로 활동하던 조셉 신 대장이 흥사단 보이스카우트 777대를 맡으면서 서 서히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다. 2014년 탈북난민들을 돕기

Keon-Jung Kim Dental Corp.

IMPLANT, COSMETIC, ORTHODONTIC & LASER DENTISTRY ORAL SURGERY

www.timkimdental.com

<u>더쓰</u>틴 김건중 종합치과

37년 임상경험의 치아이식 전문의 및 5명의 각 치과 전문의와 함께 모든 치과진료를 한곳에서 받을수 있는 종합치과

일반 · 미용치과 전문 교정치과 전문

Jin Kim, DDS, MS

Columbia 명문대 졸업 미국 board certified orthodontist (미국 교정치과 보드 전문의)

■ 3차원 CT 촬영으로 정확한 진단과 수술

Maria Capiral, DDS William Wang, DDS

Nguyen Diemphi, DDS

- Surgical Microscope을 이용한 섬세한 외과수술 및 동영상 촬영
- 레이저를 통한 무마취 · 무출혈 · 무통 잇몸치료

Address 2492 Walnut Ave. #200, Tustin, CA 92780 tel. 714-760-4988 949-679-6000 (San Diego) 760-757-9876 760-479-9876

DISINFECTED and SAFE to VISIT

Our clinic is

임프란트/구강외과 전문 Timothy Kim, DDS, MS, Ph.D





